

공 고 문

2022년 9월 23일, 제9차 이사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제1호 의안, 장기근속자(40년)표창 신설에 관한 건
 - 장기근속자(40년)를 2023년부터 추가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장기근속자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다.
- 제2호 의안, 2022년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기준 심의 건
 - 장학생 선발기준에 “조합원 본인”을 추가하기로 하다.
- 제3호 의안, 플랫폼 사업 대책에 관한 건
 - 카카오 실무협의단을 3명(이사1, 대의원1, 조합 부장1)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 인천시 정책 결정사항에 따라 공공앱콜인 이음카드앱콜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하다.
- 기타 의안,
 - 사전 선거운동 자제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부착하기로 하다.

※공고문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공 고 문

(제목: 불법 사전 선거운동 자제 호소)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민의 발이 되어 고생하시는 조합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거리두기 완화로 급격하게 제기되는 수도권 야간 택시 승차난은 국민의 이동권을 충족시켜야 하는 택시업계와 정부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으며 정부는 택시업계에게 승차난 해결이 안 될 시 타다나 카풀 도입 등 차량공유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택시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본 조합은 최근 제기되는 승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즉각적인 부제 폐지, 야간 할증 연장(10시~06시) 피크 타임 할증(23시~02시), 출·퇴근시간 할증(20%)과 휴일, 공휴일 할증제(20%) 도입을 요구하고 특히 승차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인 택시요금 대폭 인상(6,000원)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택시에서는 승차난 대책으로 리스제(사내 개인 택시)를 추진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도급제보다 못한 지입제도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택시업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단합된 조합의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렇듯 택시 업계의 중차대한 시기에 일부 조합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공고가 붙기도 전에 선거 공약을 돌리고 현수막을 붙이고 문자메세지, 카톡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할 임원선거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혼탁하게 만들며 허위사실로 조합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에 관한 사안이라 대통령도 할 수 없는 65세 이상 자격 유지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고가 많이 나면 보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제보험료는 조합원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 없는 사실과 달리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을 선동하며 우롱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자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원의 업권은 안중에도 없고 잣밥에만 눈이 멀어 일단 되고나 보자는 식으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조합원들 간의 반목과 대립을 유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위인 것입니다. 일부 조합원과 대의원들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따끔한 질책과 꾸짖음으로 조합이 바로 서고 임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불법 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 정관과 선거 규정에 의거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제9차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14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공고 이후 선거 규정에 따라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